

News

신한금융, 배당성향 22.7% 결정... 하반기 '분기배당'도 추진

머니S

신한금융지주, 20년 기말 배당금을 1,500원/주로 결정, 배당성향은 22.7%. 2019년도 배당성향(25.97%)보다는 낮지만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20%보다는 높다. 배당성향 20%를 넘긴 것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금융지주이기 때문.

10문10답 공개서한 보낸 은성수 "가계부채 세심하게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등에 대한 우려를 금융권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 가계 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극복하겠다는 자신감 드러내

중시 주춤하자 갈 곳 잃은 돈...신용대출 줄고 요구불예금 29조 ↑

연합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1705억원으로 지난 1월 말 674조3738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3조7967억원 상승 한편 2월 요구불예금은 29조 늘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시장 등의 출구가 딱히 없는 상태라 전반적으로 이탈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소처, 제재심서 "우리銀,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 공식 제출

뉴스1

금소처, 대규모 환매증단을 일으킨 라임자산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의견 제출

금소처가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 징계 수위에 대한 경감 가능성이 제기

은성수 "공매도, 정치적 결정 아닌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기간 추가연장 논란에 대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15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이데일리

한국금융지주는 종속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이며, 주당 액면가 5000원, 보통주 3000만주

치솟는 손해율에... DB손해보험, 단독실손 판매 확 줄었다

머니S

이달부터 DB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급감할 전망.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설계사에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지양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로 보험사들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손보사 vs 소비자 분쟁 '역대 최다'...금소법 임박 '긴장감'

데일리안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특수 보험사 제외 17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수는 작년 총 2만6864건으로, 최다 기록이었던 전년(2만5307건)보다 6.2% 증가 손해보험 상품의 특성 상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꼼꼼히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